

해묵은 ‘접근성 갈등’ 해법 먼저 찾아라

숨죽인 ‘지역 자산’ 다시 깨우자

②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하) 활용 방안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광주·전남을 넘어 세계적 자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콘텐츠 발굴 등 지질공원 활용방안을 재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동 약자를 포함한 전 세대의 차별 없는 탐방을 위한 접근성 개선과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해법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근성 개선 찬반 언제까지

무등산권 지질공원 활용의 선결과제로 꼽히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은 원효사에서 장불재까지 오래된 군용도로를 활용

더불어 해외 세계지질공원들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중국 내몽고 아얼산 세계지질공원의 경우 특별관광열차들, 중국 태산 세계지질공원은 케이블카와 관광전용 셔틀버스를 운행중이다. 태산은 또 어드벤처월드, 태산봉대전공원, 대산아름만위터파크, 특급호텔, 쇼핑타운 등 다양한 연계 관광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 지역 76개 마을은 전통농업에서 생태·관광·레저로 산업형태가 변화했고 지질공원 협력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밖에 일본의 이토이가와 지질공원은 2015년 신칸센(고속철도) 운행에 이어 공원 전용버스 등을 통해 이동 편리성을 강화했다.

이와 달리 환경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정책실장은 “무등산 정상부까지 접근하기 위한 케이블카나 전기버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전국 국립공원 중 탐방객 수가 매해 상위 3위를 웃도는 것만으로도 지역

‘민주화 어머니’ 배은심 여사 5·18묘역에 잠들다

6월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고 배은심 여사가 11일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7면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빈소가 차려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했다.

이날은 배 여사의 여든세 번째 음력 생일로, 영정 앞에는 고인을 위한 생일 케이크가 놓였다.

유족들과 장례위원회는 고인을 위한 제를 지난 뒤 5·18 민주광장으로 유해를 운구했다.

200명 추도객 마지막 길 배웅

고인은 200여명의 추도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길을 떠났다.

영결식은 연세민주동문회 이인숙 회장이 연보장독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한동건 상임장례위원장(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배 여사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대표와 이용섭 광주시

장, 광주전남추모연대 박봉주 공동대표가 추도사를 맡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7년 잔인한 국가폭력에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워 보내야 했던 어머니는 한평생을 편한 집 대신 비바람 몰아치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며 “약자를 품어 안은 시대의 어머니였다. 이 땅의 수많은 민주시민은 어머니의 강인한 눈빛과 따뜻했던 품을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한편, 배 여사의 유해는 광주 망월동 원효로 8묘역으로 옮겨져 남편 고 이병섭씨의 묘소 옆에 안장됐다. /최환준 기자

“군용도로 활용 친환경트램·전기차 등 운행해야”

“환경보전·관리 원칙” 반론...수년째 찬반 논란만

관광·체험·교육 연계 등 탐방 콘텐츠 다변화 시급

한 친환경트램, 전기차 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허민 의장은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관광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이동 약자 등의 자유로운 접근과 탐방이다”며 “새로운 도로를 만들기보다 환경보전을 위해 이미 조성된 군용도로에 친환경트램, 전기차 등을 활용하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지질공원활성화 시민모임에서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기존 군용도로 활용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650명 중 찬성이 87%로 높은 선택은 받았다”며 “이 같은 찬반 투표,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관광협회 정길영 회장 역시 “무등산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불재에 친환경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며 “오전과 오후 예약제를 통해 제한적 이용을 하고, 주상절리대를 연계한 상품이 개발되면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광 효과는 충분하다. 탐방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보다 정정부 군부대와 방송 송신탑 이전·복원, 탐방객 집중지역 분산 대책 등 보전과 관리 부분 과제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권 접근성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 간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며 “각종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집행할 수 있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을 두 이면에 대한 확답을 내리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편(Fun) 시티 조성을 위해 무등산 접근성 향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케이블카 설치 등을 둔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대전환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면으로 이어짐
/임채민 기자



강추위 중무장한 시민들

광주·전남지역에 영하권의 강추위와 함께 산발적으로 눈이 내린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청 인근 도로에서 두꺼운 방한복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기온 뚝’ 광주·전남 최대 5cm 눈

12일 광주·전남은 영하권의 강추위와 함께 전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까지 전남서부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서해안 1~5cm, 광주·전남서부내륙 1cm 미만이다.

눈 대신 비가 내리는 지역의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전날과 비슷하게 춥겠다. 흐리고 추운 날씨는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빈 기자

